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미디어와 언론: 연결에서 파열로
이상길

2026년 6월 8일 저녁 7:30~9:3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주요 논의 내용

-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 미디어에 대한 분류의 다양성
- 분류와 사회적 상상
- 한국 사회 매스미디어 체제의 사회적 상상
- 포스트 매스미디어 체제에서 미디어-언론의 파열?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과 모스(Marcel Mauss)는 분류 혹은 범주화가 근본적으로 자의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며, 거기엔 논리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어떤 분류 체계든 모종의 사회적 상상 (social imaginary)을 수반하며, 그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상상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과 기대, 그리고 그에 결부된 규범과 이미지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욕망하며 무엇을 투사하고 또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실재나 합리성이 답해줄 수 없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상상입니다. 간단히 '공통의 배경 이해'라는 말로도 요약 가능한데, 이는 사람들이 특정한 대상의 정당성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게 만들고, 공통의 실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같은 여러 미디어가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거대한 공간, 이른바 '공론장'을 구성(해야)한다고 상상합니다.

서구 근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매스미디어는 공론장에 대한 상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이는 매스미디어를 언론매체 또는 언론이라는 말과 곧장 동일시해 온 관행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미디어=매스미디어=언론은 공론장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상상 속에서 연결되어 자리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상은 미디어를 언론매체로 특징짓는 한편, 언론매체에 이른바

‘객관주의’ 언론의 여러 덕목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객관주의 언론 이념은 일부 비판을 받긴 했지만 20세기 후반 매스미디어 체제의 사회적 상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매스미디어 체제도 포스트 매스미디어 체제로 빠르게 변화해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는 학술적인 영역 중심으로 쓰이던 ‘미디어’라는 용어가 일상에서도 전통적인 언론과 구별되는 식으로 자주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스미디어가 미디어를 대표하고 무엇보다 ‘언론’ 기능을 의미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레저시 미디어(기성 매체)’와 ‘뉴미디어’의 일상화된 분류는 그러한 전환을 단적으로 상징합니다. 일상을 장악한 수많은 뉴미디어가 우리의 감각과 정체성 구성 방식, 사회적 관계 양식을 규정하고 또 변화시키고 있다는 진단들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스미디어 체제와 연계되어 있던 공론장에 대한 사회적 상상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플랫폼 미디어에도 공론장으로서의 적절한 기능과 ‘언론’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스미디어 체제의 사회적 상상인 새로운 체제의 구성 과정에 여전히 의미 있게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개인적 표현의 자유와 흥미의 추구 못지않게 사실성, 객관성, 형평성, 공공성 등에 기초한 의사소통의 가치와 기대가 포스트 매스미디어 체제에도 중요한 사회적 상상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가 여전히 언론이라고 믿거나, 언론이 아니라고 비난하거나, 또는 언론이기를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기대, 인식, 믿음, 가치 등의 복잡한 착종(錯綜) 양상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양상이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사상사학자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史)는 슬래시(/)가 서로 구별하면서도 깊이 연관되고 얽혀가는 문제 영역을 가리킨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포스트 매스미디어 체제에 사는 우리는 파열로 치닫고 있는 미디어와 언론에 ‘슬래시의 관계론’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매스미디어 체제의 사회적 상상을 어떻게 변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상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미디어 문화연구를 가르친다. 저서로 『라디오, 연극, 키네마: 식민지 지식인 최승일의 삶과 생각』(2022), 『상징권력과 문화: 부르디외의 이론과 비평』(2020), 『아틀라스의 발: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피에르 부르디외 읽기』(2018), 『예속과 자유: 푸코와 부르디외를 넘어서』(근간) 등이 있다.

